

#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Male Spouses' Bicultural Stress, Communication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 race & Culture Family

정의정, 하규수  
호서벤처전문대학원

Eui-Jung Jung(nayagongju@hanmail.net), Kyu-Soo Ha(ksh@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이중문화스트레스는 하위영역 중 문화충격(M= 4.32)이 가장 높고, 지각된 적대감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스트레스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셋째,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넷째, 의사소통은 이중문화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족 | 이중문화스트레스 | 의사소통 | 결혼만족도 |

### Abstract

In order determine potential correlations of multicultural family's male spouses' bicultural stress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surveyed male spouses of foreign female participants in a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y assistance programs available at national marital immigrants assistance centers and healthy family assistance center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urve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subordinate categories of bicultural stress, it was found that cultural shock (M= 4.32) scored the highest mean points in bicultural stress, while perceived hostility scored the lowest mean points in bicultural stress, where the higher points indicate the higher bicultural stress.

Secondly, in term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group exposed to higher cultural adaptation stress felt more satisfied at marital life.

Thirdly, with regard to communication with foreign female spouses, it was found that frequently communicating group had higher marital stability.

Finally,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worked as a mediator in potential effects of bicultural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 keyword : | Multi race & Culture Family | Bicultural Stress | Communication | Marital Satisfaction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는 16만 명이 넘으며, 지난 5년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약 3배가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유입 및 증가로 인해 한국가정과 미래세대 및 전반적인 문화사회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 결혼이민자여성과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남성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갈등을 경험함과 동시에 주변의 편견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부부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주위에 알리지 못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1].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주여성에 국한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는 새로운 변화를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한국인 남편과의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데 미흡하며, 셋째 선행연구들이 지나치게 결혼이주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고착화함으로써 결혼이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삶의 전략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2].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는 이주 여성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의 경우 이주여성과의 결혼한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과 가족 내에서 부딪히는 갈등,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3], 특히 결혼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써 결혼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4]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한 남성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넓게는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 또는 국제결혼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가족으로 한정하겠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는 124,998명이며, 이는 2001년 결혼이민자 수(26,182)보다 377%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증감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2009년 3월 결혼이민자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8.6%에 머물고 있다.

### 2. 이중문화사스트레스,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 2.1 이중문화스트레스

이중문화스트레스란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한 긴장을 말하며 스트레스 원에 의한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뜻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는 문화갈등이라고 기술되기도 한다[5][6].

#### 2.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며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러한 의사소통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7].

### 2.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만족 수준, 즉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지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고, 결혼적응도, 결혼행복도, 결혼성공도, 결혼의 질,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등 여러 학자들마다 다른 정의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3. 선행연구

### 3.1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보이면서 결혼만족, 결혼안정성, 결혼만족도, 결혼적응, 부부관계만족도, 부부 적응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으로서의 결혼만족도와 결혼생활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는 결혼의 질과 적응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만의 측정보다는 변인들을 선택하여 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무영은(2010)[8]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배우자 224명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하였다.

오세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아내 60명과 그 배우자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 부부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 및 가족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3.2 다문화가족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은 용어 그대로 하나의 문화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화충격 또는 스트레스가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문에서 이중문화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 문화충격 등을 다룬 논문이 많다.

최문희는(2010)[9] 결혼이주여성 12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2명으로 구분하여 음악치료를 통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를 다룬 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함과 함께 정서적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매개효과를 가짐을 보고하였다.

이무영은 다문화 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 2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능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3개 하위영역 중 타문화 수용 스트레스와 차별감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홍미기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변수로 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 3.3 다문화가족과 의사소통 선행연구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의사소통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에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우자의 반응에 주목하고 배우자의 가치와 기준에 흥미를 보이며 자기목표달성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관심도 배려하는 통합적 능력이다 [10].

한건수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 성격을 의미한다. 즉 상호간의 말에 대한 의미전달 이상의 관계형성과 문화적 이해까지 포함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11]. 서정순, 이명자, 김순이 등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최지명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여성을 비교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정숙(2010)[12]과 손진분은(2008)[13] 결혼이주여

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의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을 때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있고, 그 배우자인 한국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기에 연구의 대상으로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둔 남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역할수행을 의사소통과 함께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다문화가족 관련 입장을 다년간 시행하면서 고착된 성역할의 인식에 따라 부부간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서 역할수행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요인임을 예측하여 활용하였고, 결과 또한 역할수행이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임이 보고되었다.

####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연구가설 1.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의사소통은 이중문화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2월 11일부터 2011년 4월 42일까지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247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20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성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은 이중문화스트레스, 종속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소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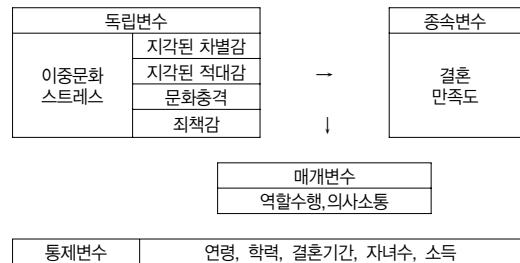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3. 연구도구

##### 3.1 이중문화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샌후와 아스라바디(Sandhu & Asrabadi)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표 1. 이중문화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지각된 차별감	8	3,9,11,14,17,23,26,29
지각된 적대감	5	4,15,20,24,33
문화충격	3	2,13,22
조작감	2	10,34

##### 3.2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비엔뷰(Vienvenu)의 MCI(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오남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인의 의사소통과 본인이 인지하는 배우자 의사소통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표 2.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본인 의사소통 본인이 인지한 배우자의 의사소통	3	2,3,5
	3	1,4,6

### 3.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1975)가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개발하였고, 본래 73문항이었으나 Bowden(1977)이 48문항으로 재구성하고[14] 유영주(1986)[17]가 변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48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이었다.

표 3. 결혼만족도 하위영역별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긍정문항	27	1,2,5,6,9,12,13,14,16,17,20,21,22,23,24,26,27,28,32,33,35,37,39,42,45,47,48
부정문항	21	3,4,7,8,10,11,15,18,19,25,29,30,31,34,36,38,40,41,43,44,46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3.0 프로그램과 AMOS을 활용하였고, 빈도분석, 분산분석, 요인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이중문화스트레스

이중문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위영역 중 문화충격의 평균값이 4.32로 가장 높고, 지각된 적대감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이 아닌 한국 남성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결혼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항수병이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한국남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표 4. 이중문화스트레스

	M	SD
지각된 차별감	3.13	1.52
지각된 적대감	3.37	1.70
두려움	3.62	1.31
문화충격	4.16	1.38
죄책감	2.60	1.45
기타	2.64	1.19

### 2. 의사소통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배우자의 의사소통은 평균이 2.87 표준편차는 0.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원활함을 배우자의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의사소통

	M	SD
자신의 의사소통	2.90	.76
자신이 인지한 아내의 의사소통	2.82	.90
전체	2.86	.78

### 3. 결혼만족도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배우자의 결혼만족도는 평균이 3.20 표준편차는 0.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결혼만족도

	M	SD
의견일치	3.49	.91
응집력	3.11	1.19
관계 만족	3.61	.71
애정표현	3.59	1.11
전체	3.20	.66

### 4.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이중문화스트레스와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

다. 따라서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문화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표 7.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이중문화스트레스	역할	M	SD		
낮음	낮음	3.26	.65		
	높음	3.10	.67		
	합계	3.19	.66		
보통	낮음	3.45	.52		
	높음	3.47	.52		
	합계	3.46	.52		
높음	낮음	3.50	.50		
	높음	3.77	.59		
	합계	3.67	.55		
합계	낮음	3.33	.62		
	높음	3.47	.74		
	합계	3.40	.68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모형	20,702	5	5.176	13.203	.000
이중문화스트레스	16,258	2	8.129	20.738	.000
의사소통	.111	1	.111	.282	.596
스트레스의사소통	2.173	2	2.713	5.543	.019
오차	85,849	219	.392		
합계	2706.322	224			

## 5. 확인적 요인분석

### 5.1 이중문화스트레스

이중문화스트레스는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적대감이다. 이중문화스트레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이중문화스트레스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Estimate	Std. Estimate	S.E.	C.R.
지각된 차별감<---이중문화스트레스	1.00***	.90		
지각된 적대감<---이중문화스트레스	1.04***	.89	.05	20.81
문화충격 <---이중문화스트레스	.58***	.50	.06	9.31
죄책감 <---이중문화스트레스	.83***	.81	.05	17.28

\*\*\*p<.001

분석결과 이중문화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의 표준화 경

로계수는 .50-.90사이의 값을 가지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4개의 영역들이 이중문화스트레스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 5.2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총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본인 의사소통, 본인이 인지한 배우자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9. 의사소통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Estimate	Std. Estimate	S.E.	C.R.
본인 <---의사소통	1.00***	.89		
인지한 배우자 의사소통 <---의사소통	1.13***	.86	.09	14.64

\*\*\*p<.001

분석결과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인 일상생활 지지, 성생활만족도, 부부갈등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9와 .86의 값을 가지고,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2개의 영역들이 의사소통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 6. 의사소통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이중문화스트레스가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114이며, p<.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은 이중문화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의미로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사이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말해준다.

표 10.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경로	간접 영향	표준화	매개 방식
결혼만족성<---의사소통<---이중문화스트레스	-.161*	-.140	부

## V. 논의

본 연구는 국제결혼 한국 남성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의 관계를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소외되고 주변화 되고 있는 남성 배우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연구가설 1].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그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게 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문화접촉이 발생하고 이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적응을 하게 된다.

이중문화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달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일컫는 것으로, 이처럼 대부분의 이중문화스트레스는 이민자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가 아닌 이민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화 되어가는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남성 배우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이중문화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은 문화충격이었다. 따라서 남성 배우자들의 이중문화스트레스를 감시시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때 문화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 준비기간을 가져 그동안 서로의 국가에 대해 공부하거나, 배우자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결혼 후에도 한국에 입국하여 의무적으로 부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중문화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16].

한편 이중문화에 관한 스트레스는 외국인과 결혼한 남성배우자나 결혼이민자 뿐만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

는 모든 외국인 이주민이 겪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결혼이민자보다 이중문화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17], 이중문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신국, 연령, 한국어능력, 한국거주기간 등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가설 2].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사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도구로써 단순한 의사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근거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한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향후 배우자의 본국어를 습득할 의향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지만 이민자의 본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31.9%였다. '배우자의 본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도시거주남성보다 농촌거주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후진국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어를 익혀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랄 뿐, 자신이 이민자의 본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적음이 안타깝다.

### 3. [연구가설 3]. 의사소통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어 의사소통,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결혼만족도에 부부간 의사소통이 연관이 있다고 밝힌 서정순의 연구, 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질을 형성한다고 주장한 이정순의 연구,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권유아

의 연구[18], 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일심의 연구, 부부갈등의 예방을 위해 의사소통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문순희의[19]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며,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이 폭력 행동 감소와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현진희의[20] 연구와 유사하다.

## VI. 결론

### 1. 요약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역사회복지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2일까지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247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20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중문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위영역 중 문화충격의 평균값이 4.32로 가장 높고, 지각된 적대감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소통은 평균이 2.87 표준편차는 0.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원활함을 배우자의 의사소통 정도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스트레스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이중문화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부부역할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았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 2.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적 실태 및 현황 파악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 남성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그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안정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실천적 함의를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시행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배우자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내 거주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확률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표집하는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대일 면접을 통한 조사가 아닌 우편발송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응답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아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은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여 극복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수행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 배우자가 인지한 이중문화스트레스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 배우자는 한국인에 의한 차별감과 적대감을 지각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에 의한 차별감과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한국여성개발원, 2007.
- [2] 이근무, 김진숙,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135-162, 2009.
- [3] J. L. Hawkins, "Perception of Begazioral Conformity, Imputation of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g the family, Vol.31, 1978.
- [4] T. N. Bradbury and F. Fincham,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2000.
- [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비전 2030, 교육인적자원부, 2006.
- [6] J. Hovey and C. Mogana,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38, No.3, 2002.
- [7] 최영실, “음 심리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샤틀어의 사소통 유형이론의 재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8] 이무영,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9] 최문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0] D. Canary and B. Spitzberg, "A model of the perceived of conflict strateg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15, 1989.
- [11]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사회 이행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와 현실”, 한국가족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16-26, 2006.
- [12] 이정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손진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4] S. R. Bowden, L. Frazier, and A. J. Roach,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1982.
- [15] 유영주,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Roach, Frazier, Bowden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6] “농협다문화여성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 [17] J. F. Smart and D. Smart,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3, 1994.
- J. D. Hovey and C. Magana, "Acculturative stress, anv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d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2, No.3, 2002.
- [18]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19] 권윤아,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0] 문순희,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치료와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1] 현진희, “폭력행동 감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 집단 프로그램의 과정분석과 효과성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저 자 소 개

정 의 정(Eui-Jung Jung)

정회원



- 2001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1년 현재 : 호서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 벤처학과 박사과정
- 2008년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여가

하 규 수(Kyu-Soo Ha)

정회원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1995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8년 6월 : TOURO 법과전문대학원(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벤처전문대학원 교수/벤처경영학과장

<관심분야> : 벤처경영, 경영